

UMPIRE SCHOOL  
CHALLENGE # 11

# 아마추어 야구 심판의 세계

글. 최용태 아리랑국제방송 융합기술센터 차장

아마추어 야구 심판에 대해 소개하기 앞서 아마추어(amateur)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추어(amateur)란 ‘프로의 반대말로,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구글링하면 검색이 되네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구 심판하면 KBO 소속의 프로야구 심판들을 떠올리고 TV로 중계되는 심판들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야구 중계로 보이는 심판들을 보면서 경기 운영을 잘하면 본전이고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잘못 보거나, safe/out의 잘못된 판정이 나올 때면 혹독한 비난을 받는 참으로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전 오늘 프로 야구 심판이 아닌 아마추어 야구 심판의 세계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지만, 저의 아마추어 야구 심판 도전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 우선 야구심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로 야구 심판의 경우는 취미가 아닌 직업이다 보니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엘리트 야구선수 출신이 아니면 일단 들어가기 힘들구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시험과 훈련을 통해 선발됩니다. 들어가도 2군에서 약 5년 정도의 활동 이력이 있어야 우리가 야구 중계로 보는 1군 심판으로 승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인(비선수 출신)들이 진출하긴 어렵겠죠.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비선수 출신 심판이 1군에 등록된 적은 없다고 하네요.

## 그렇다면 아마추어 야구심판이 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우선 KBO(한국프로야구협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주관하는 10주간의 야구심판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의 교육생은 기본 10주 교육과정 이외의 고급과정 수강 자격이 주어지고 이 과정에서 3주 동안 훈련 및 실전 연수를 통해 대한야구소프트볼(KBSA) 소속의 심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위촉된 후 1년 간의 심판 활동을 하시면 프로야구 심판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수료생들은 어디서 심판 활동을 할까요?

보통 10주간의 심판양성과정을 수료하기 1주일 전에 각 시, 도, 구 협회에서 신입 심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수료 후 심판 활동을 해 보고자 하신다면 수료와 동시에 각 시, 군, 구 야구협회에 지원하셔서 신입 심판으로써 위촉이 되어 주말마다 야구 동호인들과 함께 즐겁게 심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일반적인 심판이 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2005년도 아리랑국제방송에 첫 사내 야구 동호회 팀(Arirang REDS Team)을 창단하고 작년까지 사회인 야구선수로 활동하다 야구를 잠시 접고 2019년도부터 준비해 온 아마추어 야구심판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말마다 나가 취미 겸 운동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1



2

3

1. 2014년 리그 준우승 기념 사진

2-3.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생활체육 심판부 활동 사진 (2022년)

저는 3번의 심판학교 지원 끝에 야구심판양성과정에 어렵게 합격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상했던것보다 심판학교 경쟁률이 높았고 입학 후 야구 심판학교 동기들의 말을 들으니 전국의 시, 군, 구 야구협회장들의 추천서를 받아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말을 듣고 야구 쪽으로 아무런 인맥이 없던 일반 지원자인 저로서는 합격하기 힘들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엘리트 야구 경력지원자가 많아서 일반지원자인 저로서는 경쟁이 안 되었겠지요. 평계 아닌 평계를 대 봅니다.

매년 10월~11월 초 명지전문대 평생교육원에서 야구심판양

## 명지전문대학 • 한국야구위원회(KBO)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공동 2021년도 제12기 야구심판양성과정 개강 안내

### 1. 과정별 모집인원 및 요강

구분	모집인원	수강료	지원자격
일반과정 (8주과정)	130명	금4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신 접종 확인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 한함, 12.03일 개강일 기준, 양성 백신접종자 포함)</li> <li>야구심판에 관심이 있고, KBO/KBSA 및 사회인(종호인) 야구심판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19세 이상의 일반인(2003. 01. 01. 이후 출생자)</li> <li>* 일반과정 수료자 중 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KBO심판 채용 기회 제공(경력자와 겹치는 자에 한함)</li> </ul>

### 2. 교육일정 : 교육기간 중 매주 금·토·일요일

구분	교育기간	교育시간				
일반과정	2021.12.03 ~ 2022.01.23, 8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금요일</td><td>18:30 ~ 22:30</td> </tr> <tr> <td>토·일요일</td><td>10:00 ~ 17:00</td> </tr> </table> <span style="float: right;">1~8주차</span>	금요일	18:30 ~ 22:30	토·일요일	10:00 ~ 17:00
금요일	18:30 ~ 22:30					
토·일요일	10:00 ~ 17:00					

### 3. 교육과목

영역	전공소양	전공	교양	합계
일반과정	야구심판이란 외 8과목 : 10시간	야구규칙 및 실무실기 : 114시간	스포츠마케팅: 4시간	12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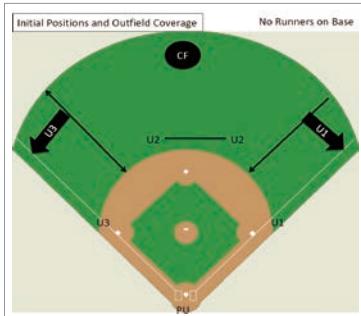
성과정 수강생 모집을 하며 교육 기간은 8~10주, 128~160 시간 야구 규칙 및 심판 실기 교육을 받고 최종 필기 및 실기 평가를 통과해야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토/일 전일, 10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니 절대 만만치 않은 교육입니다. 타지역에서 지원하신 분들은 주말마다 숙소를 잡아서 교육을 듣는 대단한 열정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구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들이 한데 모여 열어붙은 운동장을 교육 열기로 녹이곤 합니다.

또한 출석 체크를 철저하게 해서 출결 불량으로 중도 퇴학을 당하시는 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진행되는데 KBO 1군 심판진이 이론과 실기 교육 교수로, 2군 심판진이 실기 조교로 투입됩니다. 이론은 야구 규칙을, 실기는 심판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특강으로 유명한 스포츠 해설위원들이 초빙되기도 하고 실기 같은 경우 운동장에서 진행되어 교육받는 내내 추위와 싸움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운동장에서 교육받다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재입대한 건 아닌지에 대한 착각이 들 정도로 자신과의 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교육이 끝날 즈음에는 이론과 실기 시험을 1주 간격으로 보고 마지막 주엔 각 시, 군, 구 야구협회에서 필요한 신입 심판들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 시간을 가집니다. 그 시간은 신입 심판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긴 합니다. 심판비는 얼마인가? 1년에 배정되는 경기 수는 어떻게 되는지? 배정되는 경기장의 위치는 나의 거주지와 가까운지? 심판 장비는 얼마인지 등 다양한 질문이 오고 가죠.

여기서 협회원들이 궁금하실 아마추어 심판들의 심판비는 얼마나 될까요? 대회의 종류, 지역, 협회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당 5~9만 원 내에서 심판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야구 심판들의 장비는 개인이 사는 걸까요? 지급되는 걸까요? 프로 심판의 경우 kbo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



## 참 고

### 2022년 생활체육 야구심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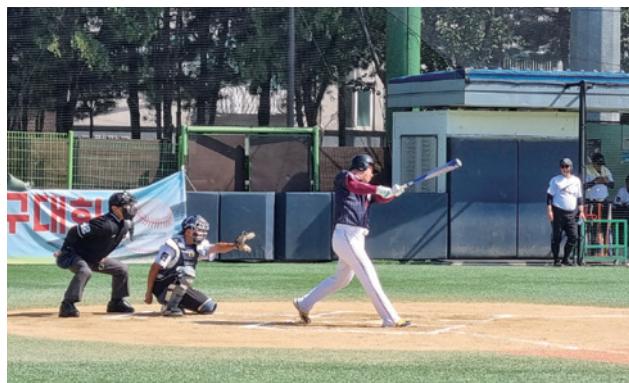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디비전리그 7만 원
-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시민리그 6만 원
- 시군구 리그 5만 원 ※2020년 기준 한국리틀야구연맹 9만 원

데 아마추어 심판들은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 합니다. 초기 심판 장비 구입 비용이 100~200만 원 정도 듭니다. 생활체육 운동하시는 분 중에 장비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게 각자 체형에 맞는 알맞은 장비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심판학교 수료와 시, 군, 구 야구단체 소속의 신입 심판 선발 과정을 거쳐 현재 저는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SBSA) 생활체육 소속으로 주말마다 취미로 심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야구심판 양성과정 11기로 수료해서 2020년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생활체육 심판부 소속이 되어 신입 심판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판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터지는 바람에 2년 동안 40경기도 안 되는 시합에 배정이 되어 협회에서는 코로나 심판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생활체육 심판부 심판진들은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고 주말마다 자기가 원하는 날에 배정 신청해서 경기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생활체육 심판부를 간단히 소개하면 생활체육 초창기 멤버인 베테랑 심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20여 명의 남녀 심판들이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생활체육 야구대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서울지역 디비전리그, 여자야구연맹 대회, 각종 사회인 야구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엘리트 심판부(선출부)가 진행하는 대회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야구 심판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심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야구장에서 선수가 아닌 반대 입장인 심판 활동을 하면서 역지사지의 뜻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17년간 사회인 야구선수로서 활동하



면서 제대로 야구 규칙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심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소리 질렀던 상황들이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 보면 어찌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역지사지의 태도가 공감 능력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회생활에서 더욱더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고 주말에 운동장에 나와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스트라이크 콜로 날려 버리며 아주 소소한 용돈도 받아 가고 싶은 협회원들은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심판은 서비스직입니다. 유리 멘탈을 가지신 분은 야구장에서 버티지 못함을 알려드려요. 사회인 야구 선수 아저씨들이 생각보다 많이 거칠거든요. 그리고 야구 심판을 표현하는 비유 중에 ‘그라운드의 고독한 중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판을 표현한 말 중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라운드의 고독한 중재자’가 되시길 원하시는 각사 협회원분들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교육받으실 때 도움이 될 다양하고 중요한 고급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gunachoi@arirang.com)



#### [야구심판양성 교육과정 정보]

- 2019년 11기 야구심판양성과정 교육 기간 10주, 160시간으로 개강(명지전문대 평생교육원)
- 2020년 코로나로 야구심판양성과정 개강이 안 됨
- 2021년 12기 야구심판양성과정 교육 기간 8주, 128시간으로 축소되어 재개강됨
- 2022년 13기 야구심판양성교육과정 개강 예정  
(10월 중순 공지, 학교에 직접 확인한 내용)